

##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

출애굽기 5:1-23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일이 안되고 더 꼬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에게 가서 항의하고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출 5:22-23) 이것이 과연 답일까요?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 무엇인가 어렵고 꼬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돌아보라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1, 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가 그 말씀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 자신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불순종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최대의 적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기 이전에 나의 불순종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관물찰기(觀物察己: 천지의 만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독일인으로서 뉴욕에 머물다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자 독일로 돌아가서 나치에 항거하다 감옥에서 순교한 본회퍼 목사님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피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를 살피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큰 어려움을 잘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흙 같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소중한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 2. 기다리라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흘 길, 삼일을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떠한 일을 진행 할 때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모세가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다리지 않고, 조금하듯 하나님 앞에 달려가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합 2:3) 아름다운 결론이 있을 터이니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약 5:7-8)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일이 생각처럼 안 되고 자신은 극심한 슬픔과 상처 속에 있었지만, “내가 참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렘 10:19) 내가 참아야 길이 있습니다.

시계의 톱니바퀴를 보십시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계를 정확히 작동시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뭔가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이루고 계십니다. 눈에 아무 것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삼일 길을 이야기 했습니다. 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약속한 시간이 이르자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삼일 만에 부활이 되었듯이 우리의 고통의 현실은 곧 승리가 될 것입니다.

### 3. 감사하라

일이 바라던 대로 안 될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때를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5:6-8a) 벽돌 만드는데 써야할 짚을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바다가 더 힘든 것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친구가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했는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워진 그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7-18)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청교도의 땅입니다.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 55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둔 곡식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일곱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 배가 크지 않을지라도 감사/ 배가 빠르지 않을지라도 감사/ 죽을지라도 감사/ 부러질지라도 감사/ 빠질지라도 감사/ 더디게 상륙할지라도 감사/ 고향에 못 갈지라도 감사/ 청교도의 신앙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면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인 우리도 그래야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아파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생각만큼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따지지 맙시다. **자기를 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립시다.** 그 날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 ○ 나눔의 시간 ○

1.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나요?(합 2:3)(약 5:7-8)(렘 10:19)
3.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요?
4.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봅시다.